

‘몰입형’ ‘확장형’ ‘시민과 함께’ 새롭게 만나는 미디어아트

올해는 광주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지 5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광주는 문화 자산과 창의력에 토대를 둔 시민의 문화 향유권의 향상,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열려 눈길을 끈다.

‘2019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김미라)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월요일 휴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6관 내·외부, 미디어월, 하늘마당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아시아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 주제는 ‘치유도시’ (White Magic City). 주제에 담겨 있는 ‘백마법’ (White Magic)은 ‘바람직한 목적에 사용되는 마법’, 즉 이타주의를 의미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도시와 ‘광주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의 정체성, 광주의 아픔을 예술을 매개로 치유해보자는 취지다.

개막식은 오는 11일 오후 6시30분에 열리며, 개막 퍼포먼스로 뮤지션 ‘솔비’와 미술하는 ‘권지안’이 협업하는 셀프-클라보레이션 시리즈 중 ‘하이퍼리듬 바이올렛’이 펼쳐진다. 안무가 ‘마담박’과 안무팀 ‘프리마빅’의 퍼포먼스 페인팅, DJ APDO의 공연도 이어진다.

12일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를 보다’를 주제로 6개국 7개도시가 참여하는 정책포럼도 열린다.

◇ ‘몰입형’ 미디어아트

올해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몰입형’ 전시라는 점이다. 12대의 빔프로젝션과 단초점 렌즈를 통해 150평 전시 공간을 12개의 채널로 나누고 함께 최대한 몰입감을 높였다. 관객들은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는 영상과 음악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서사를 읽어내고 광주의 희생이 주는 송고함의 의미와 성찰을 음미할 수 있다.

문화전당 복합 6관 전시에는 이이남, 하준수, 장승효&김용민, 윤제호, 미야오사오준 작가가 참여해 관객들을 백마법의 가상세계로 초대한다. 또한 개막 당일 복합 6관에서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과 음악감독 ‘오종’의 클라보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창경 작 '꽃과 나비의 향연'

‘2019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문화재단·아시아문화원, 11~18일 ACC 일원

‘치유도시’ 주제...광주 정체성 예술로 승화

뮤지션 솔비 개막 퍼포먼스·6개국 참여 포럼

◇ ‘확장형’ 미디어아트

두 번째 특징 ‘확장형’은 개별적 경험 중심을 벗어나 ‘페스티벌’ 형식의 전시 방식을 도입해 집단 축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문화전당 6관 열린마당에서 펼쳐지는 다면형 입체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 예다.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의 작품으로, 단순히 건축물 외면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가 아닌 건축 외관은 물론 계단과 플라자브릿지의 기둥면과 천정을 잇는 입체 파사드다. 처음 시도되는 다면형 미디어 파사드로 기술적 축적과 시스템 지원이 필요한 몰입형 전시의 또 다른 형태다.



정운학 작 '치유의 빛'

◇ 시민에 다가가는 페스티벌

문화전당 하늘공원에 다양한 빛 오브제 설치작품을 전시해 ‘찾아가는 미디어아트’의 매력을 느끼도록 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팀 ‘토어’의 ‘반딧불이 들뜬’은 점단테크놀러지를 통해 야생로그적 정서를 보여준다.

또한 특별전에서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와 함께 올해 본선 진출작 중 ‘인권과 다름’을 주제로 9개국 15팀의 수준 높은 작품을 상영한다. 또한 미디어월에서는 각각 다른 세 개의 영상면을 통해 입체적으로 상영되는 싱글채널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밖에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미디어 338에서는 기하학적이고 유쾌한 언어로 존재의 순환을 풀어내는 박희연 작가(일명 ‘뽀키’)의 초대전도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인도 전통 예술 여행’

9일 전통문화관·10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인도 고전무용 ‘바라타나티암’ 공연 모습.

인도예술단의 전통예술 공연이 광주를 찾아온다. 광주문화재단이 9-10일 인도 예술단이 선보이는 전통 무용과 음악을 만나는 행사 ‘인도 예술 여행’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문화도시들과 우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통문화교류사업으로 기획됐다.

먼저 9일 오후 4시 30분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는 인도 고전무용과 우리나라 전통연희를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날 공연에서는 인도 타밀나두 지역에서 유래된 고전무용 ‘바라타나티암’을 선보인다. 인도문화교류위원회(ICCR)가 선정한 바라타나티암 무용가 카필 샤프마와 4명의 무용수의 무대를 프리담감, 나투반감, 탄푸라 등 인도 전통악기 연주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이어 광주문화재단 프로젝트팀 전통연희 공연단의 현대 창작 음악, 퍼포먼스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또 이날은 전통문화관 일대에서 인도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도 열릴 예정이다.

10일 오후 5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는 인도 전통음악 연주회가 열린다. 인도 고전음악인 ‘까르나틱 음악’을 바이올린과 인도 고전악기의 앙상블로 선보이는 공연으로, 슈리다르 라후나디이 메인 바이올리니스트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전석 무료.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굿모닝 양림 어린이사생대회’

19일 사직공원... 16일까지 신청

광주시 남구청이 주최하고 이강하미술관이 주관하는 ‘제2회 굿모닝 양림 어린이사생대회’가 오는 19일 사직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광주대표 인문학축제인 ‘제9회 굿모닝 양림’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양림동과 사직공원의 가을풍경’을 주제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12시부터 양림미술관 주차장에 마련된 안내데스크에서 사전 신청자 명단 확인 후 도화지를 배부한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와 가족은 오는 16일까지 남구청이나 이강하미술관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심사는 이이남 작가 등 예술가들이 맡아 진행하며 올해 두명으로 늘어난 본상 대상(광주시장상) 등 모두 20명을 20일 발표한다. 행사는 유치부(5-7세), 초등부 저학년(1-3학년), 초등부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눠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미술장터”서 나를 위한 작품 구입해요

‘아트엡홈3’ 9~27일 신세계갤러리...81명 작가 460여 작품 전시

‘우리 집에, 사무실에 작품 한 점 걸어보는 건 어떨까.’ 집, 사무실 등 일상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기를 제공하는 ‘미술장터’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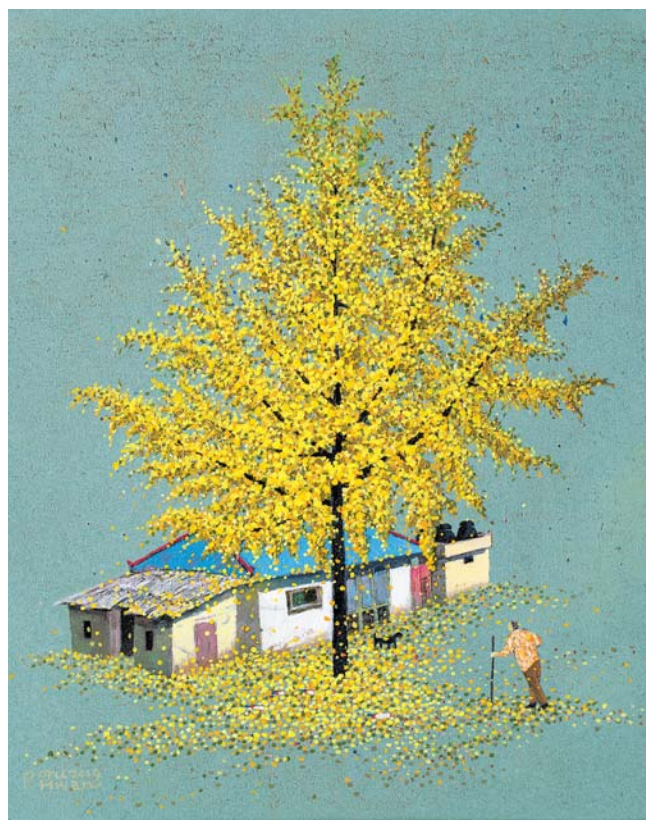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19년도 작가미술장터 ‘아트엡홈3 리얼-작가의 방’전이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김상연 작가가 기획자로 참여했으며 올해는 광주시 동구 계림동 아크 갤러리(2-9일)에서 프리뷰 전시도 진행중이다. 특히 올해는 관람객들이 작가의 리얼한 작업 현장을 엿볼 수 있도록 작가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미술작품을 전시장과 작업실을 방문해 직접 감상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전시에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중견 작가와 젊고 유망한 신진작가 등 81여명의 서양화·한국화·설치·사진·조각 등 460여 작품이 소개된다.

전시작들은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미술품으로 작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갤러리를 찾아 감상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전시 기간 중에는 작가와 미술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홈아트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생활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생활공간에 작품을 가장 배치하는 이미지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 설치 후의 공간 변화를 미리 느껴볼 수 있으며 실제 구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작품 제작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고 작품을 즉석에서 구입하는 ‘예술가의 향기’(20일 오후 2시-5시)에는 전현숙 작가가 참여하며 소망과 희망



박구환 작 'In full bloom'

메시지를 작가가 그림과 글로 표현해 제작하는 ‘나만의 포춘카드’(윤석문 작가·13일 오후 2시-4시)도 진행된다. 또 온라인으로 ‘홈아트컨설팅SNS 이벤트’를 진행, 전시장을



이정록 작 'Tree of Life'

직접 찾지 못하는 관람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거실 혹은 사무실 등 작품을 설치하고 싶은 공간을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공간에 가상으로 작품을 설치해 현장감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그밖에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예약 필수)하는 관람객들에게는 아트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작가간의 교류와 상호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강화해 작가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작가 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작가 매핑 1’(9일 오후4시)은 장현우 담빛예술창고 관장, 정현기 호랑가시나무갤러리 대표와 김민경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참여해 출판작가의 작업포트폴리오를 통한 교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작가매핑 2’는 김정삼 전 전남도립미술관 학예사 등 미술관계자들이 직접 화가의 작업실을 방문해 심화토론을 진행하는 기획으로 전시 기간 중 윤석문, 전준모, 윤준영, 강미미, 안희정, 정철호 작가를 찾아간다. 오프닝 행사는 9일 오후 6시 신세계갤러리.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터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